

초등 미술과 수업에 나타난 내용교수지식(PCK) 분석 연구

박 명 옥(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요 약 》

오늘날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미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미술수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기위주의 교과라는 오해와 미술의 본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업 개선을 위한 체계화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에 200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연구는 미술수업의 전문성은 물론, 교사의 정체성 제고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PCK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미술과의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구성요소를 조직하여 하나의 사례수업을 가지고 PCK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과 의의를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미술과의 수업에서 내용교수지식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업 개선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불어 미술교육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내용교수지식, 미술과 내용교수지식, 미술과 수업 개선, 미술과 수업 분석

I. 서 론

가변성이 높은 사회 및 문화현상을 다루는 미술교육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방식, 가치관, 인식, 태도 등에 있어서의 다양성 수용으로 인해 적지 않은 난해함과 모호함 속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실제로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pmo0906@hanmail.net

미술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에게 기존 미술수업이 갖는 어려움-미술지식의 구조화, 미적 안목의 형성, 표현력의 향상, 질적 평가의 방법 등-에 더하여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자리를 잡게 하였다. 이에 현장 교사들 중 일부는 난해함의 한 측면을 자신의 주관적 판단 하에 수업에 적용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예를 들어, 시각문화미술 교육은 대중매체인 TV, 컴퓨터, 인터넷의 활용을 통한 교육이다¹⁾-오히려 미술교육의 모호함을 탓으로 아무런 선별 또는 검증 없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끌어들이 개성, 창의성, 다양성의 이름을 내세운 즐겁고 재미있는 수업에 만족한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실기위주의 기능 교과라는 뿌리 깊은 관습적 오해로 인해 미술교과교육의 학문적 체계가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힘들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미술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 수립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준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수업의 전문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술교육이 갖는 본질적 가치 및 목적, 미술과의 사회·문화적 맥락, 교과교육학적 내용들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위에서 언급된 교사들의 예처럼, 미술에서 수업의 전문성을 논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토로 자리 잡은 창의적 인재육성의 슬로건에 맞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부합되는 활동과 행사,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적 행보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러한 외형적 부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수업에 대한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대변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곡식의 알이 안에서부터 여물고 전체의 모습이 부분들로 인해 채워지듯 미술교과의 가치를 획득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 각자가 매 시간 이루어지는 수업에서의 전문성 수립을 향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술교과에 있어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배우기 위한 지엽적이고 분과적인 수준의 교사연수나 관심 있는 교사의 자기개발성 연구와 같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화된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반면, 과학과 수학, 사회 등의 교과에서는 200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온 각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²⁾의 구조화를 통한 다각적인 교육학적 접근으로 각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수업 개선에 적지 않은 기여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³⁾

1) 시각문화미술교육에서 대중매체인 TV, 컴퓨터, 인터넷의 활용은 사회·문화적 소통과 비판적 인식, 매체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시각문화미술교육의 대두 배경과 교육 목적,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탐구적 이해 없이 이러한 현대적 매체의 사용만이 시각문화미술교육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미술교육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PCK는 교수내용지식, 교수학적 내용지식, 교과교육학적 지식, 내용교수지식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내용교수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그 명칭을 사용하였다.

내용교수지식은 교사 전문성, 특히 수업 전문성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최근 여러 교육·연구 기관 및 교육청 등에서 점점 강조하고 있는 수업 컨설팅의 주요목표가 되기도 한다(설규주, 2009). 물론, 지금까지 미술수업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속에 발휘되었던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내용교수지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습내용과 방법이 다른 교과에 비해 상당히 자유롭고 광범위해 그에 따른 난해함과 모호함으로 미술교과에 대한 내용교수지식이 체계적으로 범주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미술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미술과 교사의 내용교수지식을 구조화한 다음, 하나의 수업사례를 들어 내용교수지식에 따른 수업분석을 통해 PCK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주는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의 핵심 요소로서의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의미와 요소를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술과 내용교수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볼 것이다. 그리고 구조화와 범주화를 통해 제시된 세부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의 수업사례를 분석한 다음, 분석된 결과로 PCK의 속성과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때 수업사례에 대한 분석은 내용에 대한 기술뿐 아니라 평가의 성격도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PCK에 대한 본 연구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술수업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 미술과의 수업평가에 있어서 준거설정 및 평가척도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내용교수지식의 의미

19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특히 수업 전문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의 대표적 주창자인 쉘만(Shulman, 1986)은 전문적으로서 교사가 지닌 교수에 대한 고유한 지식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쉘만은 교사지식을 구성하는 7가지 지식기반의 하나로, PCK를 교과 내용 지식, 일반 교수법 지식, 교육과정 지식,

3) 『교과별 내용교수지식 연구』 최승현(2008),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사회과 내용교수 지식연구』 강대현(2007), 『과학과 교과교육학 지식 유형별 교사 전문성의 특징 연구』 곽영순(2008), 『수학의 교수학적 내용지식에 대한 연구의 메타적 검토』 박경미(2009) 등

학습자에 대한 지식, 교육적 상황에 대한 지식, 교육의 철학적·역사적 목적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제시하였는데(Shulman, 1987), 여기서 내용교수지식은 교과 내용지식과 교수기능 및 그에 관한 지식이 통합된 전문적 지식을 의미한다. 즉, 교사는 구체적인 교과 내용 맥락에 맞추어 교수지식을 변경함으로써 교과 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며 고유의 PCK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PCK는 교과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및 상황에 대한 지식과 신념 등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로부터의 지식들이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곽영순, 2008).

술만 이후 많은 학자들은 내용교수지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교수활동의 지식기반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왔다. 그로스만(Grossman, 1990)의 경우는 교수 전문성의 핵심으로 일반 교수법 지식, 교과 내용 지식, PCK, 상황지식 등을 정의하고, 이러한 네 가지 지식 기반 중에 PCK가 교사의 수업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코크란 등(Cochran et al., 1993)도 내용지식과 교수방법적 지식에 학생의 특성에 대한 지식 및 학습 환경에 대한 지식을 더하여 이들이 통합된 것을 내용교수지식으로 파악하였다(박경미, 2009; 강대현, 2007). 결국, PCK는 교사 지식의 한 구성요소이면서 학습자와 수업 환경 등 다른 지식들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지식의 다른 구성 요소들의 통합과 변형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K의 개념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교사에 의해 구조화된 수업내용과 수업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교수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언어, 행동, 다양한 매체의 활용,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 수업설계의 배경 및 바탕이 되는 교과교육학적 이해와 학습자를 비롯한 수업 상황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2. 내용교수지식의 요소

내용교수지식은 다분히 메타적이고 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설규주, 2009), 각 요소들은 서로 구분되어 단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작용하여 마치 리즘 구조⁴⁾와 같이 복잡적이고 다원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내용교수지식의 의미와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다소 역설적일 수 있지만, 지식으로서의 개념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내용교수지식은 교사지식 기반에 대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술만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파악한 교사지식

4) 리즘 구조는 계층화된 트리구조와 반대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중심을 갖지 않는 다양한 선들이 서로 교차하고 방향을 바꾸면서 뻗어나가는 형태를 띤다. 여기서는 각 요소들의 관계에서 다원적 영향력이 발휘되는 측면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을 구성하는 영역들과 PCK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과내용 지식과 일반 교수법적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PCK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Magnusson et al., 1999). 따라서 PCK에 대한 앞선 연구들⁵⁾을 참고하여 그 구성요소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용지식

내용지식은 ‘무엇을 왜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러한 학습내용이 선정되고 조직되는 데 필요한 배경적 지식, 즉 해당 교과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호문들의 주요 개념, 원리, 사실 등은 물론, 교과 성격과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포괄적인 앎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미술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교사는 개념이 갖는 의미와 속성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상에서의 관계⁶⁾, 그리고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과 적절한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지식은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보다는 수업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설계의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제한된 수업시간 내에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어떤 정보가 효과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배경지식의 바탕 하에 수업계획이 세워질 때이다.

나. 교수학습방법 지식

교수학습방법 지식은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는데 관여하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실제수업에서는 수업방법이나 학습모형의 선택과 관련되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수업을 위한 교재의 선택, 전략의 구성, 집단의 형태 등을 포함하며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 전략이나 교수 전략 등을 통합한 수업 과정 또는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작품감상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수업을 생각해 본다면, 감상능력을 기르고자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학습모형의 유형과 절차, 그 절차에 투입될 수 있는 적절한 활동과 매체들, 그리고 학습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전략적 지식들이 포함될 수 있다. 교수학습방법 지식은 내용지식에 비해 수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수업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수

5) 설규주(2009), 최승현(2008), 강대현(2008), Park & Oliver(2007) 등

6) 예를 들어 미술개념 중 ‘발상’을 설명할 때, 교과목표와의 관련성-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과 내용구성과의 관련성-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주제를 표현-, 교수학습방법과의 관련성-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발상지도-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업의도에 방해받지 않는 다양한 교수전략들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하다. 한편, 최근에 결과 위주의 평가에 대한 개선책으로 과정중심의 수행평가가 활성화되면서부터 평가가 수업에서 엄밀히 분리되지 않고 교수학습과정 속에 포함되거나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의 부분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다. 학습자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어떤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수업에 참여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업을 받는 대상인 학습자의 발달 단계적 특징뿐 아니라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적 상황-개인적, 집합적 성향 및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미술활동에서 보면 재료 또는 매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이와 같이 학습자에 대한 선지식이나 일반적·개인적 취향, 성격, 태도 등을 교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엔 의미있는 학습내용과 교수학습방법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라. 상황에 대한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은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어떤 수업 환경을 조성하며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 교실, 교구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물론 지역사회의 상황, 학부모의 관심, 교육제도의 변화 등이 고려의 대상이다. 특히, 동적인 학습활동이 많은 미술수업의 경우에는 교실환경구성을 포함한 공간의 설정 및 교구의 배치가 원활한 학습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과이기 때문에 주변 시설에 대한 정보 및 협조체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학급의 분위기를 들 수 있는데, 에토스적⁷⁾ 성격을 지닌 반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지식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의 요소

앞서 구분한 내용교수지식의 요소들은 각 교과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제시된 요소들 중 일부를 세분화하고 미술

7) 에토스는 ‘성격’, ‘관습’ 등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로서, 어느 사회집단의 특유한 관습을 뜻하기도 한다. 학급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는 형성된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어느 정도 고유하면서도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교과적인 측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 때 구성요소 추출의 근거는 최승현·양윤정(2007)의 연구⁸⁾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선 연구자들이 제시한 구성요소 중 미술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내용교수지식의 특성-교육과정의 재구성, 통합성, 실천적 지식 등-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술만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파악한 교사 지식을 구성하는 영역들과 PCK의 관계(Magnusson et al., 1999)를 고려하여 미술과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조성이라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였다.

가. 미술과의 목표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미술과 교사는 미술이 갖는 의미와 미술이라는 교과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여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이러한 미술의 특성을 살려 바람직한 전인적 인간의 성장을 돕는 데에 미술교과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해 심미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 사고력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포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미술교과는 역사성 및 맥락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학과로서,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에 대처하며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의 특징이 다양성, 신비성, 일시성, 복잡화, 가속화 등이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의 특성이 다양성 속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창의적인 지식창출능력, 미래의 의식능력, 다양성·신비성·일시성에 대처하는 개인대응능력이라 볼 때, 미술교과는 그 목적성에 크게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이규선 등, 2004). 따라서 이러한 교과적 의의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미술과의 배경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구체적인 미술과 수업 목표의 설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미술과의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미술과의 내용은 크게 장르별 내용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미술의 일반적 구분인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영역이 표현영역으로 통합되어 구조화된 필수학습요소에 따라 실제 수업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술과 교사는 각 장르별로 미적개념과 원리, 미술용어, 기법

8) 최승현·양윤정(2007)의 연구에서는 미술과의 내용교수지식의 요소를 미술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미술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미술 교과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학생의 미술 학습에 대한 지식, 미술 교과 평가 방법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시대적, 맥락적 의미 및 관계⁹⁾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술은 감각적 체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조형환경-오늘날 시각문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들과 개념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21세기 사회 문화적 변화의 주요 양상인 정보화 현상, 시각문화의 일상 생활화, 문화의 세계화 현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포스터 모더니즘 미술 현상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황연주, 2008). 미술은 그 자체의 특성상 명시적이고 서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요소보다는 직관적으로 느껴지거나 감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념과 현상들이 많이 존재하는 교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과 교사는 학습내용에 대한 단편적이고 분절된 지식이 아닌 포괄적이고 맥락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 수업내용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미술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¹⁰⁾은 어떤 하나의 교과에만 특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교과에서 그 교과의 특성과 내용에 맞게 적절히 구성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술과의 교사는 일반적인 수업모형이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미술 학습 모형의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미적 경험을 확대시키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식이 필요하다(김동영, 2009). 그리고 수업 초점에 따라서 선정된 수업 모형의 전반적 흐름에 적합하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수업 내용과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라. 미술과의 평가에 대한 이해 및 적용

교사는 우선 미술과에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교육과정상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미술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미술과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목표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향상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내용 및 방법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미술과 평가에서 매우 유용한 평가방식인 수행평가는 아동이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현재 아동의 발달 정도와 표현활동 정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 등에 관

9) 예를 들면, 회화의 경우 근대화회와 현대회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점, 우리나라와 서양회화의 비교, 회화에서 나타나는 사회상, 작가의 가치관과 사회적 인식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0)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수학습방법들로는 모둠활동, 조사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등이 있다.

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심영옥, 2008) 특징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미술교과의 특성상 학습내용의 많은 부분이 활동 중심적이고 개인위주로 이루어져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 결과물에 대한 판단준거의 설정, 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마. 미술과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미술과에서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수업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수업내용의 선정, 교수학습활동의 전개,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들은 미술표현과 감상능력에서 나이에 따른 일반적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3·4학년의 경우는 도식적인 표현에서 사실적인 표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는 반면 5·6학년의 경우는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면서 매우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발달상의 특징을 교사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의도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과에 대한 학생의 만족감이 떨어져 미술을 싫어하게 될 수도 있게 된다.¹¹⁾ 하지만, 여기서 교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일반적이고 집단적인 특성 외에 개별적인 차이에 따른 발달 수준과 성향, 그리고 관심과 흥미영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술과 교사는 초등학생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함께 미술의 특성상 드러나는 표현능력 및 감상능력에서의 일반적 지식,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고유한 지식까지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바. 미술과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조성

미술과 수업은 그 특성상 재료(매체)와 용구의 사용을 통한 표현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공간 환경을 비롯해 주변 환경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미술실이 특별히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책상과 좌석의 배치라든가 활동공간의 구성, 교수활동 보조 장비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효율적 조성 및 활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학습주제에 따라 계절적 변화(시간)와 장소의 선택(공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미술과의 특성상 학생들의 생각이 존중되고 자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11) 실제로 4학년 학생에게 대상을 보고 그리게 하는 미술활동에서 주제표현, 표현방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사실대로 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자, 자신이 미술을 매우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는 그들의 흥미와 관심, 호기심을 자극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내용교수지식의 구성요소 중 상황지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습 환경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부터 사회·문화적 맥락과 같이 포괄적인 범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미술교과의 특성상 시·공간적, 심리적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술만의 PCK 개념보다 넓게 개념화하고 지식발달의 역동성을 강조했던 Cochran, DeRuiter와 King(1993)의 견해에 따라 학습 환경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밝힌다.

Ⅲ. 사례수업을 통한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의 분석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섭외된 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국립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직 경력 17년 차의 남자 교사이다.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미술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학년이 담임교사에 의해 미술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대상인 교사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평소 미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으나 미술교육과 관련된 연수나 교과연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는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본 연구를 위한 수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학년 대표 수업의 사례이다.¹²⁾ 수업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업지도안¹³⁾과 수업이 녹화된 VTR자료, 수업에 대한 전사자료, 그리고 수업자와의 면담이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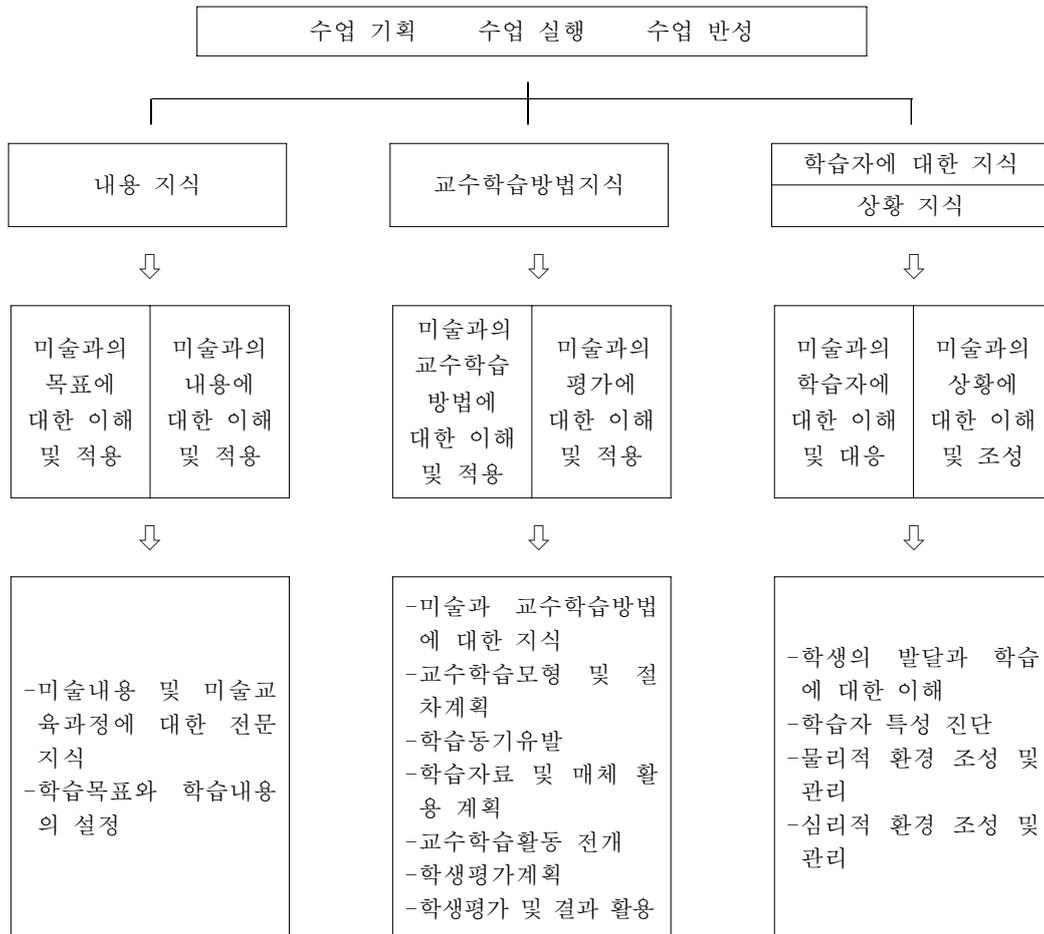
12) 본 교사의 수업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미술전담 교사의 기피로 인해 담임교사에 의한 미술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과 함께 미술에 관심이 있는 경력교사가 나름 학년 대표수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짧은 경험으로 실천적 지식이 부족한 초임교사나 현실적 여건-과중한 담임업무 등-에서 다소 빗겨갈 수 있는 미술전문(전담) 교사의 예보다 일반적인 수업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과의 내용교수지식에 대한 기술과 평가가 좀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3) 본 사례수업의 수업지도안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2.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의 분석 틀

사례수업의 분석을 위해 활용된 PCK의 분석 틀은 앞서 언급된 미술과의 내용교수지식의 구성요소와 그와 관련된 초등학교 미술과의 수업 평가 영역(김동영, 2009)을 분석의 세부요소로서 나누어 놓은 것이다. 한편, 여기에 제시된 평가 영역은 일반적인 장학이나 수업 평가에서 나타나는 단일 성격의 분석 항목이 아니라 PCK의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통합적, 맥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내용교수지식을 관찰하고 기술할 때는 분석적인 방식을 쓸 수 있지만, 실제 수업 상황에서는 PCK가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표 1〉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의 분석 틀



3.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 분석의 실제

가. 미술과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적용

1) 미술내용 및 미술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지닌 3·4학년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방법으로 자신만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본 것을 나타내는 활동으로서의 ‘상상표현’에 대한 미술적 개념을 이해하고, 더불어 현행 미술과의 성격인 표현과정,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에 부합된다. 한편, 주제에 맞게 입체 책을 만들 수 있다는 학습목표의 제시와 아이디어 정교화 단계에서 구상 학습지를 통해 자유로운 발상으로 느낌과 생각을 나타나게 한 점, 그리고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 표현과정에 관심을 갖도록 한 점 등은 교육과정 상의 내용구성에서 ‘표현’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인 주제표현과 표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4학년에서는 표현의 기초와 감각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색상지나 색종이뿐만 아니라 골판지, 형질, 부직포 등을 활용해보도록 함으로써 표현방법의 탐색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의 설정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해야 하며, 학습내용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각 영역별 학습 내용간의 관련성과 학년 군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지도안은 ‘상상표현’의 단원으로서, 이 단원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입체 책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더불어 순간적, 시각적인 컴퓨터나 영상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야기책이라는 매체가 주는 지속적, 촉각적 특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교사는 본 차시의 수업을 ‘표현’영역에 초점을 맞춰 학습목표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제에 맞는 입체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은 표현방법과 표현 과정에, ‘주제에 맞는 입체책’은 주제표현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술과의 수업에서는 학습목표의 진술에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특성이 동시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의 주제(소단원명)를 놓고 몇 가지의 제재로 나누다 보니 주요 학습

활동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만을 명시해 놓지만, 실제의 수업상황에서는 위 세 가지 특성 모두가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수업의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인식의 단계에서는 입체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미적체험-인지적 특성) 담고 있으며, 주된 활동에서는 입체 책을 구상하여 만들고(표현-심동적 특성), 정리단계에서는 서로의 작품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감상-정의적 특성)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역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미술과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1) 미술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위해서는 미술수업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술교과의 일반적인 특성들, 즉 개방적인 분위기,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활동, 학습 과정의 중시, 생활과의 관련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교수·학습이 계획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본 수업의 교사는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제인식의 단계에서 선물 배달원을 등장시켜 일반 책과 입체 책의 차이점을 쉽게 알아채도록 하고, 동시에 학습목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문제의 확인과 학습순서 알아보기에서 입체책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점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더불어 표현 동기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수업의 교수·학습 유형인 창의적 문제해결법은 학생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 ‘상상표현’ 단원의 선정배경에 부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아이디어의 구상 및 선택 과정인 ‘탐색’과 ‘정교화’ 단계에 좀더 시간을 할애해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입체 책을 만들어보자’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학습모형 및 절차계획

교수·학습 방법이 수업을 위한 교재, 계획, 전략, 모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교수·학습 모형은 실제 수업상의 일반적인 절차와 특성 상황에 따른 전략의 범주를 지칭한다. 본 수업 지도안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모형인 창의적 문제해결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상상표현 단원에 있어서의 미술개념과 미술수업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사고력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의적 문제해결법에 따른 절차계획과 이를 토대로 구성된 수업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창의적 문제해결법

① 문제인식	② 아이디어 탐색	③ 아이디어 정교화	④ 아이디어 적용	⑤ 종합 및 재검토
제시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모아 문제나 주제를 검토·해체·분류한다.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탐색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재검토, 보완하는 단계이다.	정교화된 아이디어를 표현활동에 적용하는 단계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명확한 형태로 나타낸다.	아이디어가 작품에 잘 반영되었는지 감상·분석하며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표 3〉 창의적 문제해결법에 따른 본시 수업의 전개

단 계	내 용	본시 활동 내용
문제인식	문제 인식	♣ 동기유발 - 입체 책과 일반책의 비교 - 입체 책 ‘이상한나라의 엘리스(로봇 사부다)’ 펼쳐보기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모으기	<활동1> 입체 책 이렇게 만들어요 -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아이디어 정교화	아이디어 시각화	<활동2> 나만의 입체 책 만들기 - 주제에 맞게 나만의 입체 책 구상하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체 책 만들기
아이디어 적용	아이디어 표현	
종합 및 재검토	감상 및 분석	<활동3> 내가 만든 책 보세요 - 입체 책 전시하고 감상하기

3) 학습 동기 유발

교수·학습 활동에서 동기 유발은 학습의욕에 도화선을 붙이는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많은 호기심으로 인해 주변 현상에 관심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관심을 끌지 못할 경우 집중도가 떨어지고 현재의 것 외의 다른 관심사를 찾기 시작한다. 따

라서 수업의 시작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하여 아동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것은 미술 상자에서 과연 어떤 것이 나올까하면서 잔뜩 긴장하고 바라보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미술사의 마음과 견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아동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물’이라는 소재로 출발하였으며, 방식 또한 누군가에게로부터 전달받는 형태를 취해 현실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체 책을 만들기에 앞서 입체 책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학생을 통해 선물을 직접 받게 하면서 일반 책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동기유발이 단지 학생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목표와의 일관성 속에서 앞으로의 학습과 관련지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교사가 제시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입체 책들은 학생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더불어 멋진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학습의욕을 높여주는 것으로써, 학습목표와 관련된 참고작품의 선택 및 제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학습자료 및 매체활용 계획

다른 교과와는 달리 미술에서는 매체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높는데, 수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학습자료 및 매체와 관련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과 배우는 학생 입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미술활동의 재료들과 교사의 교수활동에 투입되는 학습 자료들인데, 여기서 교사가 활용하는 자료는 또다시 학습내용과의 직·간접 관련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본 수업을 위해 교사가 준비한 학습 자료 및 매체 활용 계획을 위의 구분에 따라 정리한 다음, 활용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표 4> 학습 자료 및 매체 활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일부분

구 분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및 매체	활용의 타당성
교 사	소프트웨어	학습활동 <활동1>	색종이, 가위, 완성작품 	교사의 시범을 통해 입체 책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구상학습지는 아동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습활동 <활동2>	구상 학습지	

구 분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및 매체	활용의 타당성
교사	하드웨어	학습활동 <활동1>	PPT(참고작품), 실물화상기, 자료 바꾸니	입체 책은 접었다 펼쳤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작품의 경우 실제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PPT를 활용할 경우 동영상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습활동 <활동3>	실물화상기, 작품게시용 줄과 집게	
아 동		학습활동 <활동1>	색종이, 가위	미술에서 다양한 재료의 탐색은 조형 활동의 기본이 된다. 하지만, 본 수업에서는 책이라는 매체의 주요 재료로서 종이와 활용되는데, 이 때 재질의 특성(질감, 무게, 딱딱함과 부드러움 등)을 탐색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습활동 <활동2>	양면 색상지,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 등		

5) 교수학습활동 전개

교과교육학적 측면과 교과내용학적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업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수업을 조직했을 경우, 실제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에서는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수업의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교수·학습 활동의 전개에서는 다각도의 접근-구체적으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적절한 교수 매체와 교수 용어의 사용, 재료와 용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활동별 제한 시간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본 수업의 교사는 사전 연구 및 검토를 통해 수업을 조직하고 계획된 바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아동의 수준과 학습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조직(개별, 모둠, 전체)과 전달방식(설명하기, 시범보이기, 예시 들기)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수 매체(PPT,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등)를 활용하고 있다. 즉, 동기유발 시 참고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TV를 활용하거나 시범을 보이며, 아이디어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위해 모둠으로 조직하는 등 효율적인 교수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책이라는 특성 때문에 재료적 측면에서 종이류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가능하다면 창의적 조형탐색을 위해 형겅, 셀로판지, 색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좀더 다양한 입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료의 확장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 미술과의 평가에 대한 이해 및 적용

1) 학생평가계획

미술과에서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겠지만, 이러한 최상위의 목표는 결국 매 수업시간마다 이루어지는 학생평가의 올바른 수행과 활용을 통해서만 이 가능할 수 있다. 즉,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습지도 자료를 삼기 위해 행하는 활동으로서, 올바른 수행과 활용을 위해서는 수업목표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준거의 설정과 학생의 반응에 대한 교사의 대응적 작용으로서의 피드백(재투입)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미술과 평가의 도구 중 ‘관찰법’을 통해 수업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관찰법’은 학생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보통 실기 시험 등 다른 평가 방법과 함께 사용하게 된다. 다음의 <표 5>는 본 교사가 계획한 내용으로서 주제에 맞는 입체 책을 만드는 학습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과정’과 ‘결과’의 두 관점에서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 때 표현영역의 필수학습요소인 주제표현과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과정을 고려하여 평가내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하지만, 상·중·하에 따른 평가의 기준을 어떤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평가의 활용으로서 피드백과 관련된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평가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술교과의 내용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판단을 위한 미적안목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하며 더불어 자기평가, 상호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의 적용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표 5> 학생 평가 계획

평가 관점		평가 내용	평가 척도			비고
			상	중	하	
과정 평가	준비성 수업태도 제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준비를 잘 하였는가? · 수업 태도가 바른가? ·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결과 평가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 책을 주제에 맞게 표현하였는가? · 재료의 효과를 잘 살렸는가? · 화면의 짜임새가 잘 구성되었는가? · 유의점을 생각하여 나타내었는가? 				

2) 학생평가 및 결과 활용

평가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확보는 평가결과에 의한 판단과 활용에 올바른 근거로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학습목표의 달성도 확인을 위해 재어야할 내용을 얼마나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미술수업에 있어서는 교과 특성상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평가항목(내용)과 관련된 타당도의 문제보다는 평가자와 관련된 신뢰도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된다. 즉, 대부분의 미술수업은 내적인 자기표현의 과정이면서 더불어 미술교과에서 추구하는 미적 감수성이나 미술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력 등을 활동과정 내에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미술교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타당한 미적 판단 준거, 학생들의 미술발달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 평가가 행해진다면 올바른 평가는 고사하고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관점을 심어주어 결국 부정적인 학습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미술적 소양 바탕 하에 가능한 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에 따른 척도(예: 상·중·하)의 준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학습활동 전에 평가 기준안을 학생들에게 안내해줌으로써 학습목표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수업에서 교사는 평가의 관점을 ‘과정’과 ‘결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정의 경우는 수업시간 동안 보여준 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와 준비상태를 관찰한 다음 수업 후에 상·중·하의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수업과정 중에도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기준에 따른 수시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 입체책의 형태가 독특하거나 재미있을 경우 칭찬의 말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평가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루어진 교사의 평가기준은 수업목표에 대한 지식,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등이 통합된 실천적 지식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결과의 경우는 작품을 수합한 다음 수업과정 중 종합 및 재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생들 상호간의 평가와 자기평가를 참고하여 평가항목(내용)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상·중·하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준거가 제시되어있지 않아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며,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계획을 세워 추후 수업설계 및 학생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미술과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대응

1) 학생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이해

초등학교 3·4학년의 표현은 상징적 표현과 사실적 표현이 함께 나타나는 과도기적 단계

이면서도 주관적인 자기표현의 의욕이 왕성한 시기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표현의 주제나 방법에서 많은 차이가 나며, 한편으로 자신의 그림 수준과 주변의 대상에 대한 향상된 지각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본 지도안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입체 책 참고 자료를 보여주어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아이디어의 발상과 구상에 대한 이해 및 자신의 표현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 및 재검토 단계에서 서로의 작품을 비교·감상하는 활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관계나 주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사물과 재료에 대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 열등감을 갖거나 서로 쉽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에 대한 교사의 발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학습자 특성 진단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측면(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등)에서 발달단계상의 특징을 보이는 것과 같이, 미술에서도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표현능력이나 감상능력 등에서 연령에 따른 보편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술과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의 일반적인 미술 발달적 특징들을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지역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또는 학교별, 반별 구성원의 차이에 따른 선수학습의 정도, 관심과 흥미의 여부, 선호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 수업의 교사는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학습자 특성을 진단하기 위해 학급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는 학습활동의 선택과 발문의 유형, 시간의 안배, 집단 운영 계획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작품보다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실태파악을 통해 수업의 정리단계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작품에서 잘한 점을 찾아보자’, ‘친구의 작품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자’라고 발문하여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감을 높여주었다.

마. 미술과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조성

1) 물리적 환경조성 및 관리

미술에서의 물리적 환경은 타 교과에 비해 그 중요도가 매우 높는데, 그것은 미술교과가 도구적(매체의 측면)이고 능동적(활동의 측면)이며 과정적(수업의 측면)인 특성을 지닌 까닭에 학습공간의 확보와 학습코너의 구성, 교수활동의 보조 장비 등과 같은 환경조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그 학습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양한 미술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는 미술실(활동테이블, 수도시설, 준비

물 서랍장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별 사정상 미술실이 구비되지 못한 환경에서는 교실 내 책상의 배치라든가 공동자료 및 도구의 준비, 교수 보조 장비의 활용 등이 학습내용에 맞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교사는 학생 상호간의 협조적 태도와 아이디어 구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재료를 나누어 쓰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모둠학습의 형태로 책상을 배치해 놓고 있다. 또한, 작품의 발표와 감상을 위해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칠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술수업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효율적인 조성은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진 미술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어진 학습 환경 속에서 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교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한다.

2) 심리적 환경조성 및 관리

미술은 대부분 내면적 작용을 통해 외형적 형태가 표출되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교사가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수업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로 인한 활동 과정 및 결과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학습내용을 가지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학생 상호간의 역동성을 끌어낼 경우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교사의 주도하에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차를 무시한 채 몰아간다면 학생들은 심리적 긴장 속에서 유연한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본 교사는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활동(동기유발, 학습순서 안내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생각을 수용하고 개별적으로 다가가 격려를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성취의욕을 갖도록 해주고 있다.

〈표 6〉 교사, 아동간의 상호작용

	<p>T: 아이디어 구상하기가 쉽지 않지? S1: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T: 그래, 잘 하고 있구나. 나중에 아주 멋진 입체 책이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정희 생각은 어떠니? S2: 네, 제 생각도 그래요. (구상 학습지를 보며) 그런데 한옥아! 그렇게 하면 책이 펼쳐질 때 찢어지지 않을까? T: 그렇구나. 정희 말대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구나.</p>
-------------------------------------------------------------------------------------	------------------------------------------------------------------------------------------------------------------------------------------------------------------------------------------------------------------------------------------------------------------------------------------------------------------------------

IV. 결 론

오늘날 ‘문화’의 아이콘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듯, 물밀듯이 쏟아져 내리는 문화적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예술교육은 이리 저리 휩쓸려가고 있다. 시각문화미술교육, 예술영재교육, 예술과 창의성의 관계연구 등 이제 미술을 포함한 예술교육은 수많은 이론과 연구 속에서 충분한 당위성을 인정받고 세상에 뭔가 획기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지만, 교육현장은 아직 그들의 기대감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술만을 놓고 본다면, 미술수업은 여전히 실기위주의 표현활동-다양한 측면의 미술적 역량에 초점이 맞춰있지 않은-이 주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재미와 즐거움만이 주된 목적인 양 수업의 2/3이상이 학생들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¹⁴⁾ 이와 같은 현장의 모습은 미술과 수업의 본질을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체성과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막연한 느낌만 간직한 채 미술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행태가 미술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보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사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 각 교과별로 내용교수지식(PCK)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미술과에서도 수업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의 진행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PCK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미술과의 내용교수지식 구성요소를 조직한 다음, 하나의 수업사례를 통해 내용교수지식을 분석함으로써 미술과 PCK의 성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술수업사례의 분석을 통해 PCK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첫째, 교과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학습자 변인, 상황 변인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PCK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의 내적·외적 발달 상태에 따라 학습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불어 그에 맞는 환경조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술과의 PCK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미술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교육학적 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교육학적 변환이란 미술지식을 정확한 학습목표의 인식 속에서 학습자 수준에 맞게 학습내용을 조직하고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양윤정·최승현, 2007). 셋째, 미술과의 PCK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의 반성과 적용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미술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학습 과

14) 여기서 말하는 학생활동은 교사가 만들거나 그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 미술시간의 거의 전부를 학생들 스스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뿐 아니라 학습 결과, 즉 표현 결과물에 대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수업 계획을 세워 학생들 작품의 완성도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인들로 인해 결과물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PCK 구성요소로부터 피드백하고 다음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본 수업분석에서는 교사의 반성에 따른 차시 수업 적용부분이 제시되지 못했지만, 차후에 이루어진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본 수업에서 미비했던 다양한 재료탐색 활동이 다음 수업활동에 적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결과물에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미술과의 수업과 관련해서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다양한 수업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수업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범주화된 수업분석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미술과 내용교수지식(PCK)의 분석들은 미술과 수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체성을 높여주며, 더불어 미술수업에 대한 질 높은 평가기준안으로서의 역할 또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현(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사회과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V(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서울: 미래엔(대한교과서).
- 김동영(2009). **교실친화적 교사 양성을 위한 초등 미술과 수업 평가 기준**.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양운정, 최승현(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미술과 내용교수지식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승현(2008). **교과별 내용교수지식(PCK)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곽영순(2008). 과학과 교과교육학 지식 유형별 교사 전문성의 특징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8(6), 592-602.
- 박경미(2009). 수학의 교수학적 내용지식(PCK)에 대한 연구의 메타적 검토, **수학교육**, 48(1), 93-105.
- 설규주(2009). 초등 사회과 수업에 나타난 내용교수지식 분석 연구. **사회과교육**, 48(2), 29-51.
- 심영옥(2008). 미술과 수행평가의 개선 방안 연구. **조형교육**, 31, 119-142.
- 이규선, 권준범, 고숙자(2004). 미술과 교육목표에 대한 고찰. **사향미술교육논총**, 11, 123-142.
- 최승현(2009). 내용교수지식에 기초한 수업컨설팅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2(1), 27-45.
- 황연주(2008). 2007년 개정 초등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 영역의 이해와 고찰. **미술교육논총**, 22(1), 125-152.
- Cochran, K. L., DeRuiter, J. A., King, R. A.(1993). Pedagogical content knowing: An integrative model for teacher prepar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4(4), 263-272.
- Grossman, P. L.(1990). *The making of a teacher: Teacher knowledge and teacher education*.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Magnussen, S., Krajcik, J., & Borko, H.(1999). Nature, sources, and development of PCK. In J. Gess-Newsome, & N. G. Lederman (Eds.), *Examining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p. 95-132). Dordrecht: Kluwer

- Park, S. & Oliver, J. S.(2007). *Revisiting the conceptualization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PCK): PCK as a conceptual tool to understand teacher as professional*. Res Sci Educ. Springer Science. (e-Book)
- Shulman, L. S.(1986).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15(2), 4-14.
- Shulman, L. S.(1987). Knowing and teaching: Foundations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1-22.

· 논문접수 : 2010년 12월 31일/ 수정본 접수 : 2011년 3월 8일/ 게재승인 : 2011년 3월 11일

ABSTRACT

An Analysis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Elementary Art Classes

Myeong-Ok Park

(Candidate for the Ph.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rt education today,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art education. But art classes in the field of education has a lot of problems. There are reasons about the misunderstandings of practical-oriented curriculum and lack of awareness of the nature of art and etc, but above all, I guess that the systematic studies for instructional improvement was lacking. Because of this, the research of PCK which has been gradually discussed from the 2000s can have a impact the enhance of teachers' identity as well as art of teaching expertise. Therefore, the researcher understood the basic information about PCK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organized the components with PCK of art and examined that the nature and the significance of it by analyzing PCK through the case of a class. As a result, the PCK in the art class can rais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bring on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improvement and help to increase the value of art education.

Key Words :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rt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alysis of art class

<부록: 사례 수업 지도안>

단 원	6. 상상표현 - 나도 그림 동화 작가			교과서	70쪽	
일 시	2010.6.20(토) 2-3교시	대상	4학년3반 28명(남14명,여14명)	장 소	4-3 교실	
학습 문제	입체로 책을 만들어 보자 (3-4/6)			수업자	교사 최○○	
학습 목표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주제에 맞는 입체 책을 만들 수 있다.					
교수·학습 유형	창의적 문제 해결법	자료	교사	선물가방 2개(입체 책과 일반 책), ppt자료, 학습지학습문제와 활동내용 입체책		
			학생	양면색상지,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		
단 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문 제 인 식	동기유발 (전체학습)	<p>□ 전시학습 상기</p> <p>T.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 공부하였습니까?</p> <p>T.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야기 책 중에서 잘 한 작품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p> <p>T. 선생님이 두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p> <p>□ 선물을 배달원이 들고 들어오기</p> <p>T. 선생님의 선물을 열어보세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p> <p>T. 두 사람 선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p> <p>T.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p>	<p>S. 이야기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p> <p>S. 감사합니다.</p>  <p>S.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책입니다.</p> <p>S1. 입체책과 일반책입니다.</p> <p>S2. 카드가 올라옵니다.</p> <p>S. 입체 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p>		6'	<p>● 선물 가방 2개</p> <p>◇ 배달원이 들고 들어오도록 한다.</p> <p>● 학습문제 입체 책</p> <p>● 활동내용 입체 책</p>
	학습 문제 확인	<p>□ 학습문제 확인하기</p> <p>♣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입체 책을 만들어 보자</p> 				
	학습 순서 (전체 학습)	<p>□ 학습순서 알아보기</p> <p>【활동1】 입체책 이렇게 만들어요</p> <p>【활동2】 나만의 입체책 만들기</p> <p>【활동3】 내가 만든 책 보세요</p> 				

단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빛 유의점(◇)																																	
		교사	학생																																			
아이 디어 탐색	학습활동 <활동1> (전체학습)	<p>【활동1】 입체책 이렇게 만들어요</p> <p>□ 입체책 참고 작품 보기</p> <p>T. 입체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봅시다.</p> <p>T.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입체책을 만드는 방법을 익혀봅시다.</p> <p>T. 바구니에서 종이와 가위를 꺼냅니다.</p> <p>□ 입체책 만드는 방법 익히기</p>	<p>S. 여러 가지 입체책이 있습니다.</p> <p>S. 네.</p> <p>□ 순서를 생각하며 입체책 만드는 방법을 익힌다.</p>	4'	<p>• PPT (참고작품)</p> <p>• 자료 바구니</p> <p>• 실물화상 기</p> <p>• 색종이, 가위 ◇교사의 시범을 따라 익히 도록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th> <th colspan="4">만드는 순서</th> <th>완성 작품</th> </tr> </thead> <tbody> <tr> <td>코</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입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집</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하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만드는 순서				완성 작품	코						입술						집						기둥						하트			
	만드는 순서				완성 작품																																	
코																																						
입술																																						
집																																						
기둥																																						
하트																																						
아이 디어 정교 화	학습활동 <활동2> (개별학습)	<p>【활동2】 나만의 입체책 만들기</p> <p>T.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응용해서 나만의 입체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p> <p>T. 각자의 학습지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책을 만들지 생각하여 표현해 봅시다.</p> <p>T. 나만의 책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발표를 들어봅시다.</p>	<p>□ 학습지에 나름대로 구상하여 기록한다.</p> <p>S1. 입술과 코를 만들어 이야기를 꾸미고 싶습니다.</p> <p>S2. 집을 만들고 창문을 만들어 이야기를 꾸미고 싶습니다.</p> <p>S3. 입체 기둥을 이용해서 동화책을 만들고 싶습니다.</p>	10'	<p>• 구상 학습지 ◇깨간 순서</p>																																	

단 계	학습 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교 사	학 생		
아이디어 적용	<p>학습활동 <활동2> (모둠학습)</p> <p>□ 입체책 만들기</p> <p>T. 책만들기 활동을 할 때의 주의 할 점은 무엇입니까?</p> <p>T. 그럼 다음의 내용을 생각하며 입체책을 만들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책의 틀을 만든다. - 주제에 맞게 만든다. - 내용을 깔끔하게 표현한다. - 바탕지와 어울리도록 채색을 하거나 모양을 만들어 꾸민다. <p>T. 모둠을 만들어 나만의 입체 책을 만들어 봅시다. 모둠을 만들고 준비물 바구니를 가지고 갑니다.</p> <p>T. 각자가 구상한 대로 작품을 완성해 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표시해주세요.</p> <p>T. 남은 자료를 정리하고 자리를 정돈합시다.</p>	<p>S1. 주제에 맞게 꾸밈니다.</p> <p>S2.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p> <p>□ 각자가 구상한 대로 입체 책을 만든다.</p>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바구니 (책만들기 재료) ◇ 꾸밈 이야기 는 미리 준비해 오게 한다. 	
종합 및 재검토	<p>학습활동 <활동3> (전체학습)</p> <p>[활동3] 내가 만든 책 보세요</p> <p>□ 내가 만든 책 자랑하기</p> <p>T. 자기가 만든 책을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p> <p>T. 나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잘한 점을 찾아봅시다.</p> <p>T. 친구의 작품에서 좋은점을 발표해 봅시다.</p>	<p>□ 각자의 작품을 보여주고 작품을 게시한다.</p> <p>S1. 입체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p> <p>S2. 얼굴 모양이 잘 나타났습니다.</p> <p>S3. 주제에 어울리게 표현했습니다.</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화 상기 ● 작품게시 용 줄과 집게 	
	<p>정리활동 (전체학습)</p> <p>T. 오늘 활동에서 재미있었던 점이나 더 해보고 싶은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p> <p>T. 오늘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p> <p>차시 예고 (전체학습)</p> <p>T. 다음 시간에는 착착이야기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S1. 입체책 만들기가 재미있었습니다.</p> <p>S2. 오늘 만들어보지 못한 다른 책들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p> <p>S. 칭찬합니다.</p> <p>S. 네.</p>	5'		